

5월 공연장은 '가족과 함께'

시립합창단, 오늘 기획연주회
가족 주제 리디안팩토리 밴드 연주
전통문화관, 11월까지 '토·토·전'
도립미술관, 주말 클래식 공연



한강공장이 공연을 하는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가족의 정의와 범주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족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친밀한 정서적 공동체이다.

올해는 유독 '가족'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이태원 압사 사고' 등은 가족의 의미와 존재를 생각하게 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이면 자연스레 가족을 떠올리는 게 인 지상정이다. 5월을 맞아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문화기관들이 준비한 가족, 가정을 모티브로 한 행사들을 소개한다.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가족'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획연주회 II '가족'은 가족 의미를 되새기고 소원했던 가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이중 부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이후성의 첼로 연주가 곁들 어지고 리디안팩토리의 밴드 연주로 풍성할 무대를 선보인다. 첫 번째 무대는 가족 간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내 아버지', '엄마' 등 전체 13곡으로 준비됐다. 세 번째 곡 '엄마'는 첼로의 감미로운 반주가 더해져 감동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무대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주자 이후성의

특별출연 무대로 첼로를 위한 불후의 명곡으로 알려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전주곡'과 생상사 '백조'가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는 온 세대가 함께 듣는 가요합창으로 '출발', '사랑인가 봐'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통문화관 복합프로그램 '토·토·전'

전통문화관 '토·토·전'은 무등푸른 던의 상설 절기 프로그램과 토요일상설공연을 연합한 슬로건이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오는 13일에는 입학 체험 위주로 꾸려진다.

K-pop과 대중음악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국악그룹인 한강공장이 꾸미는 국악장작무대가 서석당에서 펼쳐진다. 서도민요 배치기 선율을 주재한 산조 즉흥연주를 시작으로 '강강술래', '한오백년' 등 초연곡을 연주한다.

공연은 홍초은(해금), 송운민(소아쟁), 박수현

(거문고), 김재호(기타), 김예찬(베이스) 등 한강공장의 단원들과 진정민(음악감독)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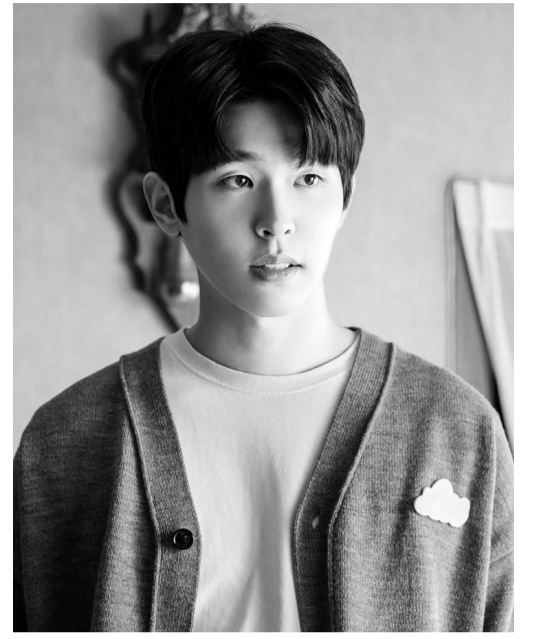
◇전남도립미술관 클래식 공연, 이벤트도

오는 14일 오후 4시, 지하 전시실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도립미술관의 높은 공간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후 21일(오후 3시)에는 야외 잔디광장에서 체험형 클래식 공연이 예정돼 있다. 미술과 연관된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가족들이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도립미술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선정한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한 달간 무료입장도 추진한다. 미술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SNS 리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아트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6살 차 선배와 멜로, 망설임 없었죠"

이시우, 드라마 '종이달'서 첫 주연
돈맛 알아가며 변해가는 학생 연기
"차기작은 로코물 도전하고 싶어"



"김서형 선배님처럼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하는데, 멜로 호흡을 맞추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망설임 없이 직진하는 친구라서, 배우인 제가 망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10일 만난 배우 이시우(24)는 첫 드라마 주연작 '종이달'에서 26살 차이 나는 대선배와 멜로 호흡을 맞추는데 걱정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시우는 지난 9일 종영한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에서 39살 기혼녀 유이화(김서형 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속물적으로 변해가는 27살 영화와 학생 윤민재를 연기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와 사채업자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윤민재는 떠안은 빛안 산더미다. 촬영 중 다친 친구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는데, 거기서 유이화를 처음 만난다.

은행에서 VIP 고객을 관리하는 유이화는 통장 잔고에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는 "추악한" 노인의 돈을 윤민재에게 대신 건네고, 그렇게 두 사람은 깊게 얽히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견줄 수 없이 빠져든다.

촬영 중 다친 친구의 병원비에 보태라고 동기들이 모아 준 돈을 거절했을 만큼 자존심이 센 윤민재는 조건 없이 베푸는 유이화를 만나 점점 변해간다. 돈의 출처는 생각지도 않은 채 호텔 스위트룸에서 룸서비스를 700만원어치 시켜 먹고, 일반택시 대신 모범택시를 타면서 유이화가 제공하는 편의를 당연하게 누리기 시작한다.

이시우는 "돈 주고 정 했는데 돈맛 보고 변했다"고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다"고 멋쩍게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욕

먹어 마땅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저는 윤민재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에게 그렇게 대가 없이 턱턱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라도 받는 것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돈과 사치에 익숙해진 윤민재는 결국 "내가 반짝이 피에로가 된 기분"이라며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수천만원원을 턱 내놓던 유이화에게 이별을 고한다.

둘의 관계는 윤민재가 돈맛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삐끗거리기 시작하지만, 이시우는 "윤민재가 유이화를 끝까지 사랑하긴 했었다"고 말했다.

데뷔 6년 만에 첫 주연을 꿰찬 이시우는 "김서형 선배님과 함께 연기하는 경험 자체가 큰 공부였다"며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에는 밝은 로맨틱코미디나 코미디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환하게 웃었다. /연합뉴스

광주서 세계 평화 위한 '예술 담론의 장'

5·18 43주년 기념 평화예술대회, 17~18일 시립미술관 등

제주 4·3미술, 광주오월미술, 평화예술...

위에 열거한 미술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평화'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예술을 통해 평화를 기억하고 사유한다는 것은 중요한 '예술행위' 가운데 하나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기념해 광주평화예술대회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고 동아시아 평화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번 기획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이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광주비엔날레관, 국립5·18민주묘지 등에서 17~18일까지 개최한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이 지향했던 광주정신을 짚어보고 이를 모티브로 세계 평화를 위한 예술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 평화에 대해 깊이 숙고해보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첫째 날 17일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는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인 김영수 시인(신동업문학관장)이 '광주에서 다시 생각하는 평화예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분과토론은 4개 분과(제주 4·3미술, 광주오월미술, 동아시아 평화예술, 생명평화와 예술)로 나누어 평화예술에 관한 토론을 한다.

주제발제는 우다퀸(대만 C-랩 큐레이터)이 '대만 2·28과 평화예술', 토미야마 카즈미(아키비스트, 오키나와국제대학 강사)가 '평화학과 평화예술', 김동현(문학평론가)이 '제주 4·3예술과 평화예술', 홍윤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오월미술과 평화예술'을 발표한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본관 전시와 시립미술관 전시를 관람하고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술관 홈페이지나 SNS에서 사전예약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BTS 제이홉·슈가 다큐

다음달 극장서 개봉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과 슈가의 다큐멘터리를 다음 달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됐다.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영화사그램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제이홉 인 더 박스'(j-hope IN THE BOX), '슈가: 로드 투 디데이'(SUGA: Road to D-DAY)를 다음 달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차례로 극장에 걸린다. 두 다큐멘터리는 앞서 디즈니+를 통해 공개됐다.

'제이홉 인 더 박스'는 제이홉의 첫 솔로 앨범 제작과 활동기를 비롯해 헤드라이너로 공연한 롤라 팔루자 무대 위 모습 등이 담겼다.

'슈가: 로드 투 디데이'는 슈가가 솔로 앨범을 만들며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교류하고, 음악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로드 무비 다큐멘터리다. /연합뉴스

'어느 날 그녀가...' 휴스턴국제영화제 백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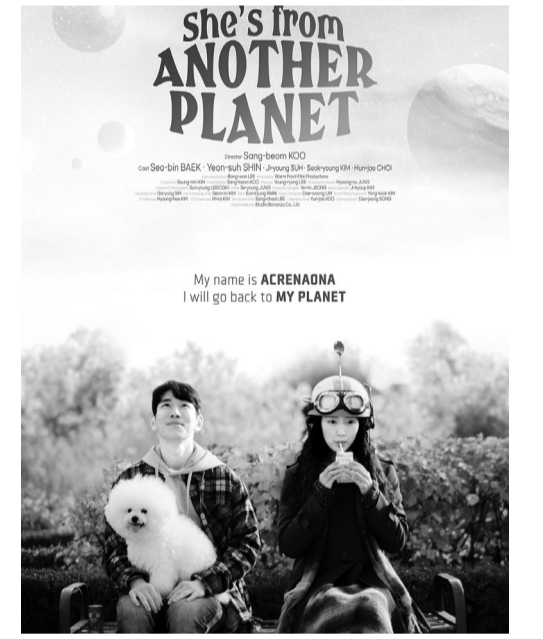
한국영화 첫 대상 수상

구상범 감독의 영화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가 제56회 휴스턴국제영화제 장편 로맨틱 코미디 부문 백금상을 받았다고 배급사 이놀미디어가 10일 밝혔다.

한국 영화가 이 부문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백금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 감독은 "기쁘고 영광스럽다.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가 관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는 자신을 우주적 존재라고 믿는 나은(신연서 분)과 취업준비생 석민(백서빈)이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백서빈은 이번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영화는 올해 하반기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